

인터뷰 · 바다에게 길을 묻다

서해갯벌을, 세계인의 관심사로 만들다

자연·저항·참여의 삶을 산 비판적 자유지성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 한 모퉁이의 조용한 사무실을 찾아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서 도약의 역사를 써온 우뚝한 학자 고철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났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한 자락이 18층 아래서 느끼고 말없이 무성영화처럼 돌아가는 듯 보이는 이 공간이 그의 정년퇴임 후 연구실인 셈이다. 선생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지점에 동자를 들고 자신이 평생 공부해온 지식,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과학이라는 도구적 지식이 어떻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이롭게 하는 쓰임새를 가질까를 연구과제로 삼고 치열하게 궁구하고 있을 터이다. 애오라지 자연·저항·참여 삼위일체의 삶을 살고 있는 비판적 자유지성인 선생과 함께 그의 규형인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더 정확하게는 갯벌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꿈은 무엇이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글 채미애

고철환 1946년생 제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에서 식물학 학사·석사를 마치고, 독일 갈대학교 해양생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1년 이래 31년간 서울대 해양학과(현재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지내고 2012년 정년퇴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초대 소장(1993),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1994), 대통령지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2003),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기구 부의장(2011) 등의 사회활동을 했다. 연구논문 100여편, 국제 초청강연 10여 회, 국제 학술회의 논문발표 70여회 등의 학술활동을 했으며, 저서로는 「한국의 갯벌」, 「해양생물학」, 「수리분류학」 등이 있다. 현재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기구 기술분과 의장,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photo : Jong Ryeol Lee



**자연과학자에게 다가온
정년의 쓸쓸함, 새로운 희망**

누구에게든 평생을 바쳐온 일에서의 정년이란 얼마만큼은 '제도 밖으로 던져버려지는' 듯한 황망하고도 쓸쓸한 경험일 것이다. 더군다나 자연과학자에게 정년이란 '이제 당신은 실험실과 연구원 없이 연구하라'는 '폭력'에 가까운 사건일 것이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30년간 봉직하며 오로지 '갯벌 연구'와 '연안퇴적물오염 연구'를 통해 경제 발전과 자연보전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온 고철환 선생. 그는 실험실 없는 자연과학자의 삶을 자신의 새로운 조건으로 긍정하기 위해 심연으로 가라앉아 추스르고 점검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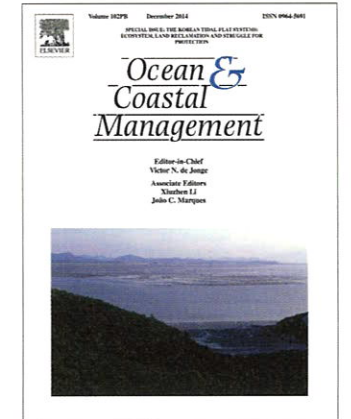
정년퇴임 강연에서 선생은 학교생활과 퇴임 후 생활을 '일への 집중'과 '사람 생각'을 대척점에 놓고,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선생은 언제나 그런 식이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다른 이들이 떠받치고 있는 덕분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그 자유의 반대급부로 사회를 위해,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했고 성실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변화시켜 왔다. 그런 선생에게 얼마 전 개인적으로는 물론이려니와 우리나라 국토와 사람들이 함께 웃음꽃을 피울 희망의 경사가 있었다. 해양정책 분야의 세계 최고 국제학술지 「해양·연안 관리 Ocean & Coastal Management」(102 PBI)에서 영문판 「한국의 갯벌 특별호」가 나온 것이다. 특정분야의 연구 결과를 특별호로 편집 출간한 것을 모노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영예이다. 정작 기쁜 일은 거기에 있지 않다. 바로 선생의 평생 열망이 세계적인 이슈로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는 데 있다.

**모노그래프
'한국의 갯벌 특별호'가 갖는 의미**

"이 책의 의미는 한국의 갯벌이 세계적인 갯벌임을 학술적으로 증명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갯벌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갯벌인 유럽 3국(네덜란드·독일·덴마크)에 걸쳐 있는 바덴 해 갯벌과 비교해 그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1990년대부터 주장해온 '한국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이라는 구호의 상징성이 이 책으로 이론적 뒷받침이 된 셈이지요. 상징적 구호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진동되고 확산되고 작용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선생은 80년대 말부터 갯벌연구,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새만금 생명학회 창립, 갯벌 보호 운동 등의 현장 한가운데 있으면서 갯벌을 간척지라는 개념의 쓸모없는 땅에서 더없이 소중한 인류 생태계 순환의 자산 개념으로 바꾸어놓았다. 그리고 한 발 더 욕심을 내 우리나라 갯벌을 세계적인 갯벌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고, 90년대부터 '한국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글을 쓰곤 했다. 그 상징적 구호는 비판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선생의 말대로 힘을 발휘했다. 희망과 꿈, 그리고 기적의 설계도는 수학적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려지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것은 선생이 보고 경험하고 실험하고 연구한 결과의 확신이었으며 당위였다. 그러니 순전히 그의 고집스런 열망이 만들어낸 기적이라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선생은 정년을 2년 앞둔 2010년 10월, 여러 연구자들과 우리 고유한 갯벌에 관한 책을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4년여 열정적인 작업 끝에 그 결실을 얻었다. 이제 선생은 슬며시 다른 기적을 만들 꿈을 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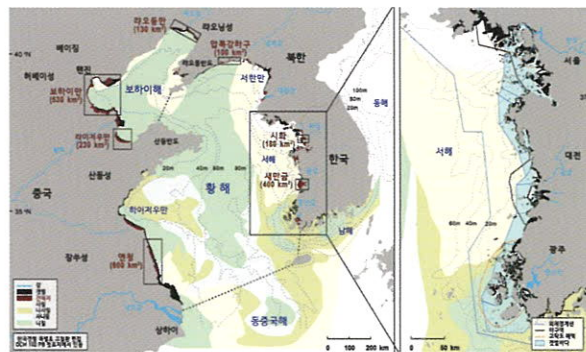


세계인이 찾는 '서해갯벌바다 국립공원'을 그린다

“좀 낯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서해를 ‘갯벌바다’라고 불렀으면 해요. 갯벌의 탁한 물을 생태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니까 말이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한국의 갯벌 특별호」 출간기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새로운 구호가 당연히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 혹은 누려야 할 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라’는 구호를 지난해 3월부터 다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봤을 때 참 멀고도 먼 일이죠. 말 그대로 꿈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가능의 지점에서 다시 실현 가능한 꿈을 꿈니다. 차근차근 한 가지씩 바뀌어나가 한 20년 걸려 이루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불모의 간석지, 개펄, 갯벌 등으로 불리는 곳에 ‘갯벌’이라는 이름을 찾아 주고 그것이 품고 있는 귀한 생태계의 의미를 환기시켰던 선생은 또 한번 작명을 해 우리에게 던진 말 ‘갯벌바다’, 그리고 ‘갯벌국립공원’.

“우리나라 갯벌은 산과 어우러지는 광활한 경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계 수입원으로서의 생계형 갯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같은 사실은 바덴 해 갯벌이 휴양갯벌, 철새갯벌이라는 점에서 귀한 고유성을 갖는 것과 같은 지점이에요. 게다가 생물종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덴 해 갯벌보다 오히려 폄박받는 우리의 갯벌이 단연 우수합니다. 갯벌 규모에서도 세계 여타 갯벌에 결코 뒤지지 않아요. 중국 동해안, 북한까지 합친 황해갯벌 면적이 1만8200km²로 바덴 해의 4700km²의 4배에 이르며, 남한만 보더라도 약 4500km²이니 바덴 해에 버금가요.” 선생은 이렇듯 고유한 특성을 가진 우리 갯벌 자원을 갯벌바다와 함께 국립공원화하자는 제안으로 다시금 갯벌 보호에 작은 창문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해양국립공원이 없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태안 해안, 다도해 해상, 한려 해상인데 이들은 해안과 해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보호대상을 바다가 아니라 육지부와 섬으로 국한하기 때문이지요.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 특이한 해역을 선택해야 해요. 그렇게 볼 때 밀물과 썰물로 물에 덮이고 햇빛에 드러나기를 반복함으로써 희귀한 해양생태계를 형성하는 갯벌과 그 바다가 유일한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반열에 있으니 그 주변의 바다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세계적으로 그 특이함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선생의 체계적인 사유방식은 곧바로 이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일로 이어졌다.

국토의 남북을 흐르는 동쪽의 백두대간과 서쪽의 갯벌

“우선 보호 강도가 느슨할지라도 넓게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일부터 해야 해요. 거기에 ‘대규모 개발은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는 거죠. ‘백두대간보호법’은 보호 강도가 높아서 갯벌 보호와 견주기는 어렵지만 개발을 금지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벨트로 지정한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갯벌을 대규모 개발대상으로 보고 이용하려는 정치권력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니 첫발은 떴는 셈이죠.”

「한국의 갯벌 특별호」의 결론 논문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갯벌계’를 ‘갯벌바다’로 부르고 느슨한 형태로라도, 대신에 아주 넓은 지역을 보호하기 시작하자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 평행해서 ‘갯벌바다보호법’을 만들면 육지와 바다의 핵심지역을 짝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해양수산부 소관의 「갯벌바다국립공원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선생은 1988년 농업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양생태계 조사에 1년간 참여하는 우연한 기회를 기회로 갯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그가 우리나라 갯벌에 관한 인상을 적어놓은 문장은 펍 인상적이다. ‘배를 타고 나가서 닻을 내리고 기다리면 갯벌이 드러나는데 그 드넓은 광경에 압도되고 말았다. 아니 어찌 그런 곳이 있을까.’ ‘갯벌을 배 타고 나간다는 일이 믿기지 않더니만, 배를 타고 가서는 또다시 걸어도 결국은 그 끝을 밟아 보지 못하고 돌아섰던 첫날이 생각난다.’ 이로써 갯벌은 선생의 삶을 바꾸고, 선생은 갯벌의 삶을 바꾸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갔던 것이다. 최초로 갯벌 연구를 공학적이 아닌 생태적으로 접근했을뿐더러 암반생태, 퇴적물오염 연구 분야의 개척자이기에 ‘잠수과학자’라고 불리는 선생은 현장 연구를 하다가 어느새 갯벌에 몸이 쑥 빠지곤 하며 강단이 생기고 피부색이 그을었다. 연구는 그렇게 몸을 던져 할 수 있었건만, 눈앞의 경제적 가치와 정치권력의 힘에 의해 피폐해가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흐



름은 몸을 던져도 막을 수 없었다.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드러나 햇볕을 받음으로써 온갖 생명을 키우는 그 어머니의 땅 갯벌이 하릴없이 내버려진 질 낮은 농경지로 바뀌어갔다.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세상은 계속 진보하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근대화라고 하면 산업의 근대화, 정치적 근대화, 경제적 민주화, 여성 문제의 민주화, 생태적 근대화 등을 아우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넘어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 특히 환경은 언제나 경제에 종속적이었어요. 제가 새만금 반대운동을 그리 열심히 한 것도 자연 파괴를 정치가들이 탐욕의 방편으로 삼아 사회에 불평등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었어요.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애써 살아가고 있던 진보의 기반을 통째로 싹 없애는 행위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모순적인 일들이 자연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거예요. 온갖 모순이 대규모 자연파괴 과정에 개재되어 있어요.”

따뜻한 자연보존주의자의 자연스런 행동

단순한 집중으로 관찰된 선생의 학문적 삶이 항거의 삶으로, 참여의 삶으로 확장되어가는 국면을 맞은 건 너무나 자연스런 행보였다. 갯벌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새만금 갯벌의 간척사업을 막지 않으면 누가 막는단 말인가. 대대손손 균형 잡힌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지식인이 팔을 걷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선생이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자연과학자로 이름난 것도 이런 그의 자연스런 생각에서였다.

“과학 하는 사람의 사회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영산강 4단계, 4대강 사업,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같은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왜 우리에게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려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도 사실상 방조제를 쌓는 것이니 간척이죠. 이 모든 간척사업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시간적·공간적으로 유린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는 계층은 오로지 정치권력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권력에 항거하는 단 하나의 이유지요. 저는 자연보존주의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언론에서 심심찮게 목격하게 되는 선생의 투사적 면모는 어쩌면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떠

받치는 자연을 보존하고 싶어 하는 단순한 소망의 따뜻한 물림이며 쓸쓸한 그림자라는 생각이 든다. 선생의 제자로서 12년을 지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성 교수는 자신을 위시해 그를 가까이서 봐온 이들은 ‘따뜻함, 자유로움, 섬세함, 소통, 집중력, 치열함, 우리 것’과 같은 단어로 선생을 떠올린다고 술회했다. 학문·항거·참여의 모습으로 드러난 선생의 울림은 행적들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눠 이루어 나가야 할 의무이자 권리 같은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늙지 않는 청년정신.

“성실한 다수의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을 소수의 정치권력이 검은 끈으로 포획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항거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 중에서 첫 줄에 서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기득권자이고 전문가이며 지식인입니다. 저는 자연과 생태를 평생 공부한 사람이니 어떡하든 생태지향적인 사회가 되도록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해야겠지요. 제가 해온 일도,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그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티끌 모아 태산이리지만, 티끌을 아무리 모아 보았자 세상이 너무 커서 티끌이 상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평생 한길을 치열하게 치달아왔지만 해놓은 것은 모래 한 알도 되지 못한다는 쓸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삶을 사회에 바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사회운동을 해야 하는 건 자명합니다.”

선생은 언제나 그 생각의 위치를 좌와 우의 잣대 위에서 구하려 하고, 권력이 우로 치우쳐 있음을 비판하고 저항하며 소외된 약자, 소외된 자연의 편에 서서 기득권 권력의 독점을 어떻게 해체하고 저지하는가를 고민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이제껏 한눈팔지 않고 과학자로, 대규모 자연착취의 전형이었던 갯벌을 품어 안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자연보존론자로,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삼보일배 하듯 살아왔다. 그것은 자신이 왜 교수이고 지식인인가를 겸허히 숙고해 자신의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자리매김한 소산에서 나온 지순한 판단의 실천이었으며 그가 일과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방식, 그의 삶 자체인 것이다. 🌍

* 채미애 님은 자음과 모음에서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현재 프리랜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